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이 준 형	소속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교통실		
질문제목	공영차고지의 기능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강일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의 문제점		

<질문개요>

2018년 12월, 서울시는 주택 8만호 보급을 계획하고 이의 일환으로 장지동과 강일동에 있는 차고지를 입체화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중 강일 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강일 컴팩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설계 추진 중이며, 2023년 이후, 현재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차고지 내 근무시설과 휴식시설, 주차 공간들은 데크를 신설하여 이동시키고, 차고지 위쪽으로는 공공주택이 지어질 예정임

그러나, 이 ‘강일 컴팩트시티’에 대한 강동 지역의 주민협의체와 운수업체 관계자들의 민원이 있음

- ① 차고지의 입체화 사업은 공영차고지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버스운행 저하 및 천만시민 교통권 훼손할 수 있음. 서울시에는 총 29개의 공영차고지가 있지만 더 이상 차고지를 건설하기 힘든 조건으로 기존 차고지 현대화로 용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주택공급에만 급급하여 차고지위에 집을 지어 차고지시설을 잠식하는 모순이 발생

차고지 지하화로 형식적으로는 주차 용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대형차량인 버스를 지하 2~3층으로 이동시켜 지하 주차장의 기둥을 피해서 주차 및 정비, 세차, 충전을 진행하고 설계상으로도 대형버스

가 회전하기 어려운 구간이 발생하고 이동 동선이 겹쳐 차고지 운영 효율성을 심각히 침해함

- ② 버스운전기사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종과 다르게 고도로 집중된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적절한 휴식과 안전이 요구되나 차고지 입체화 사업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차량정비, 도장작업 및 차량 이동에 따른 미세먼지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중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
- ③ 차고지 입체화 사업부지에 설치될 CNG 충전소와 저장소는 폭발력이 강한 시설물인데 이러한 수백 대의 CNG버스, 전기·수소버스를 아파트 지하에 주차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발상이며, 만에 하나 버스화재 발생 시 압축된 CNG 발화로 인해 버스 차고지와 아파트 전체가 녹아내리는 대참사로 귀결될 수 있음
- ④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버스업계 노사의견 청취와 임시차고지 대책 마련 등을 통합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간담회로 축소 진행하며 철차적 정당성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질문내용>

- ① 이에 강일의 주택·버스 차고지 지하화 사업 전면철회하고 기존 차고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요구
- ② 사업 시행 전, 주차 및 운행가능 여부 시뮬레이션 진행하여 사업의 현실성을 갖출 것
- ③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 정책토론회 개최 요구

④ 입체화 사업의 전면철회가 어려울 경우, 주택·차고지 구역 분리나 차고지 구역 완전 지상화로 주민의 안전성과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산업안전을 기반한 설계로의 변경을 주문